

DM 21655

1998학년도

석사학위논문

# 칼빈교회론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역사신학 전공

이 호 영

# 칼빈교회론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

指導 이은선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 년 12 월 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역사신학 전공

이 호 영

이호영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김성봉 印 

審査委員 이은철 印 

審査委員 (이우경) 印 

審査委員 이우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 년 12 월

## 謝 辭

본 論文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  
하여 주신 이은선 교수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998 년 12 월 일

이 호 영

# 목 차

## 제 I 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문제제기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제 II 장 한국교회 교회론의 문제점

- 제1절 기능주의적 교회론에 치중한 한국교회 ----- 5  
제2절 한국교회의 세속화와 개교회주의 ----- 7

## 제 III 장 칼빈의 교회론의 형성배경

- 제1절 교회의 어원적 정의 ----- 9  
가 구 약 ----- 9  
나 신 약 -----10  
제2절 로마 카톨릭의 교회론 ----- 12  
가.교회의 신적설립 ----- 13  
나.사도적 계승 ----- 14  
다.禮典의 秘義로서의 교회 ----- 14  
라.위계제도적 법, 국가로서의 교회 ----- 15  
마.전 기독교와 인류의 중심으로서의 로마카톨릭교회 -- 15  
바.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카톨릭의 견해 ----- 16  
제3절 루터의 교회론 ----- 16  
가.이신칭의와 교회론 ----- 17  
나.말씀의 피조물인 교회 ----- 17

다.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 -----	18
라.만인 제사장론 -----	19
마.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	20
<b>제 IV 장 칼빈의 교회의 본질</b>	
제1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개념 -----	22
제2절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	24
제3절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	29
제4절 선택받은 자로서의 교회 -----	31
<b>제 V 장 칼빈의 교회의 기능</b>	
제1절 말 씀 선 포 -----	34
가.선포되는 말 씀 -----	34
나.성령의 내적 증거와 조명 -----	36
제2절 교회의 성례전 -----	37
가.세례 -----	39
나.성찬 -----	41
제3절 교회의 권징과 교직 -----	42
가.권징 -----	42
나.교직 -----	43
<b>제 VI 장 결 론 -----</b>	<b>47</b>
참고문헌 -----	50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문제제기 및 목적

오늘날같이 교회관이 무질서한 시대는 별로 없었다. 개신교 안에서도 각 교파마다 다른 색깔의 교회관을 지니고 있으며, 장로교단 안에서도 개교회의 목회자에 따라 조금씩 교회관이 다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에 의해 세워진 피선교지 교회였으므로 미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이식성을 면할 수가 없었다. 1922년에서 1933, 36년에 걸쳐서 미국 북장로교회가 겪은 신학적 논쟁과 뒤따른 교단의 분열 또한, 신학교의 연쇄적인 난립 현상은 그대로 한국교회에 파급되어 미국과 비슷한 길을 한국교회는 겪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에 와서는 약 40여개의 장로교단과 50여개 이상의 신학교의 출현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비극 앞에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교회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교회관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된다.<sup>1)</sup>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통해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과 신학풍조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 된 바이다. 특히,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찬 물결을 타고 교회론은 분명히 교회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주제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론의 재정립은 시급히 요청되는 문제이다. 교회의 윤리적인 현상 및 전통적인 교회론에 반기 드는 신학적인 도전이 거센 조류처럼 밀려오고 있다.

1) 김의환, “개혁주의 교회관”, 「신학정론」, 합동신학교, 1993년4월호, 통권11권1호

그렇다면 먼저,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제시한다. 포도나무 개념, 백성개념, 지체개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비유들은 각기 교회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일면성을 갖고 있다.<sup>2)</sup> 그러나 그 어느 한가지 비유로써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관을 성경전체로써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대한 종교개혁가이며 하나님께 사로잡혀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칼빈은 여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주고 있다.

칼빈의 교회론은 신자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교회를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교회관을 칼빈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4권 1조 2항에서 교회란 가시적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미 죽은자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선민을 합해서 가리킨다.<sup>3)</sup> 즉, 택함받은자의 총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성경에서 교회론을 정립했던 칼빈을 통하여 오늘날 현대교회는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는, 한국교회의 기능적 부분에만 치우친 그릇된 교회관이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이 위기적 상황 아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야 것을 목적으로 칼빈의 교회관을 재음미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칼빈의 교회론이야말로 종교개혁 정신의 가장 철저한 표현이므로 현시대의 교회관의 불명확함에 대하여 그의 교회론으로 새롭게 조명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칼빈의 교회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회본질과 원래의 기능을 찾음으로써 오늘날의 기준없이 혼탁한 교회론

2) 김의환, "개혁주의 교회관", 「신학정론」, 합동신학교, 1993년 4월호, 통합11권1호 p. 11,

3) J 칼빈, 「기독교 강요」, 신복윤, 한철하, 이종성 역, (서울:생명의말씀사, 1988) 4.권 1조. 2항



에 대항하여 개혁교회 전통을 다시 세우려 하는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전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할 것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참고로 할 것이며, 그와 관련되는 칼빈에 대한 연구논문과 저술들도 참고하고자 한다.

칼빈의 신학체계 전체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교회론의 본질과 의미를 확정하려는 것이다. 칼빈의 교회론을 연구하기에 앞서서 성경에서의 교회의 어원적의미와 칼빈의 교회론의 배경이 되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론, 루터의 교회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칼빈의 교회론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과 루터의 성도의 교제에서 더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의 교회관을 「기독교 강요」 제 4권에서 다루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과 기능 및 참된 표지등을 다루면서 신앙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강요 제4권의 분량은 [기독교 강요] 전체 분량에 비추어 보면, 약1/3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칼빈은 이처럼 교회론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교회론과 신앙과의 관계를 찾으면서 진행될 것이다.

논문의 전개 방법은, 우선 제 I 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연구를 하게된 문제제기와 목적을 설명하고 또한,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 II 장에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칼빈의 교회론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제 III 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어원적 배경 및 로마 카톨릭과 루터의 교

회론적 배경을 다루고자 한다. 칼빈의 교회론은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에 두고 신앙을 위해 발전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제IV장에서는 칼빈에게 있어서의 교회론의 본질을 알아보는데, 여러 가지 문헌들을 바탕으로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론의 위치를 살펴보게 된다. 교회의 본질을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가시성 및 불가시성' '선택받은 자로서의 교회'를 다루면서 현재 지상에 있는 외형적 교회를 중요시하며 또한 불가시적 교회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제V장에서는 신앙을 세우기 위한 교회의 참된 표지로서 교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적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교회에서의 말씀선포와 성례전, 권징과 교직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기능들로 인하여 교회론의 중요한 목표인 진정한 신앙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본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였던 것과 그 내용들의 결론을 마치면서 본 논문은 끝나게 된다.

## 제 II 장 한국교회 교회론의 문제점

### 제 1 절 기능주의적 교회론에 치중한 한국교회

기독교사에서 20세기는 선교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교회론에 집중하게 되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함께 현대시대에 번져가는 그릇된 교회관의 영향으로 비 성경적인 교회연합운동 및 교회의 비교회화 운동의 새로운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 앞에도 전개되고 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교회를 떠나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 만민구원론의 도전은 교회의 생명체적인 요소를 뿌리 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교회로 하여금 새 인간사회를 지향하는 하나의 행동매개체로 전략시키고 있다. <sup>5)</sup>

교회는 다만 전체 사회의 궁극적 구원의 첫 열매에 불과한 것으로 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와 일반 세속의 질적인 구별을 부인하며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한 교회의 존재가치 보다도 사회의 구조적 변혁을 위한 교회의 효율성을 더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를 기능주의적 교회로 발전케 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맹점은 먼저, 성경해석의 개방적인, 비판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교회의 올바른 기능보다는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는 교회에 대한 비신학적 자세에 원인이 있다. 교회에 대한 비신학적 자세는 세속 신학에서 나온 것이다. 에큐메니칼 신학은 교회가 교회 되는데 실패한 것은 교회가 세상과의 동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세상을 위한 교회'와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Service형의 교회관은 에큐

4) 전호진, "현대 교회론과 선교사상", 「교회문제연구」, p. 27.

5) 김의환, "개혁주의 교회관", 「신학정론」, 합동신학교, 1993, 4월호 통합11권 1호, p. 9.

메니칼 신학이 ‘담 밖의’ 신자와 ‘교회밖의 교회’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6)

여기서 지적할 것은, 오늘날 이런 자유주의 계열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생명체로 보다는 하나의 사회개조를 위한 실험체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16세기의 전통에 있어서 칼빈의 입장보다는 인문주의자들이 취한 노선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교회밖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종교적 다원주의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큐메니칼 신학의 교회관은 교회의 영적 실체를 과소 평가하는 과오를 범했으며, 교회가 교회 되는데 실패한 것은 교회가 세상과 동일화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비콕스는 그의 저서 「세속도시」에서 교회는 세속과의 구별을 내세운 과거의 성숙의식을 타파하고 교회와 세상과의 담을 헐 때만이 교회로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교회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목적은 어디까지나 인간화 운동이며 이 운동은 그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정당화 한다. 오늘날 이러한 교회관으로 인하여 많은 한국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떠나서 교회를 사회변혁의 도구로 이용하는 가운데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7)

이러한 기능론적인 교회론은 선교사상에도 불가피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개인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이, 개인의 원죄보다는 구조악의 모순에 더 관심을 가지는 선교관으로 변천하였다. 따라서 선발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통적인 선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현 역사에 활동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곧 선교라는 Missio Die(하님의 선교)가 나왔다.8)

이러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기능주의적 교회관에서 우리가 찾아볼

6) 전호진, “현대교회론과 선교사상”, 「교회문제연구」, 교회문제연구소, 1998. pp. 58-59.

7) 김의환, “개혁주의 교회관”, 「신학정론」, p. 10.

8) 전호진, “현대교회론과 선교사상,” p. 59

수 있는 공통점은, 교회를 존재(Being)로 보다는 기능성으로 보며 교회의 본질보다는 기능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 자체가 강조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변화나 선교 등과 같은 문제들이 강조되는 이유 또한, 부분적으로 오늘날의 사고방식이 세속적인 곳으로 흘러가는 흐름 때문이라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교회론은, 교회의 기능을 정당해주는 본질이 상실된 상태에서 기능적 교회론으로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기 보다는 내재성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의 사명만을 외치는 행동과 신학의 오류가 자못 크다고 보며, 이러한 교회관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떠나서 교회를 사회변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가운데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 제 2 절 한국교회의 세속화와 개교회주의

오늘날 한국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을 본다면, 한국사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하락되고 있는 도덕성에 병행하여 교회들 역시 점차 세속화되고, 무기력해지며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왜 세계 여러나라들의 교회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또한 한국교회들마저도 더 이상 새롭게 신장하지 못하고 점차로 위축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문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과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교회관의 정립 부재라고 지적하고 싶다. 교회관이 정립되지 않은 지도자들로 인하여 교회들은 극단적인 개교회주의로 또한, 비성경적인 분파주의와 인본주의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듯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9) 밀라드 J. 에릭슨, 「교회론」, 이은수역, 서울:CLC, 1992, p. 20.

오늘날 성공한 교회상은, 외적인 교회성장으로 즉, 대형교회만이 성공한 교회상으로 생각하는 사상들이 더욱더 세속문화를 교회안에 쉽게 발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교회들은 개교회이기주의로 빠져들게 되었고 교회들간에 경쟁으로 세속적인 방법인 물량공세, 타교회교인 등록시키기,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속적인 기업으로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떠난 인간 위주의 교회로 다가가게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여파는 교회의 바른 복음전파와 전도사역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고 교회의 감소현상은 여기서 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과 현상들에 대하여 칼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지체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지체개념은 그리스도의 주격성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질서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이 있는 이 교회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를 지배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만이 그 통치자가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칼빈처럼, 개개인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하나됨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이 먼저 경험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됨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노출되는 문제점들을 칼빈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 제 III 장 칼빈의 교회론의 형성배경

#### 제1절 교회의 어원적 정의

##### 가. 구약

교회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에클레시아(εκκλησια)의 뿌리를 구약의 קָהָל과 קָהָל의 두 단어에서 찾는 것이다.<sup>10)</sup>

קָהָל은 전투나 전쟁, 모반 혹은 말씀을 듣거나 회막을 세우거나 축제를 위한 종교적 목적을 위해 “소집하다” 또는 “부른다”는 의미를 가진 קָהָל로부터 파생된 “모임”, “집회”, “회중”을 의미하는 명사이다.<sup>11)</sup> קָהָל은 아마도 낱말에서 “어떤 지정된 장소나 약속에 의해 만나며, 어떤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만난다.”는 의미를 가진 어근 קָהָל에서 파생된 “모임이나 회중”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이 두 단어는 L.Berkhof 이 지적한 대로 종종 구별없이 사용되기도 하나, 그렇다고 엄격하게 동의어라고 할 수도 없다. 아마도 קָהָל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나 대표적 지도자들에게 의해 형성된 공동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에 קָהָל은 “백성들이 함께 모인 실제적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2)</sup>

LXX에서는 קָהָל이 대개 εκκλησια로 번역되어 있는 반면에 קָהָל은 전부는 아니지만 100회 정도의 εκκλησια로 번역되었고 특히 LXX에 나오

10) 게르만 계통에서는 Ecclesia를 쓰지 않고 Church를 쓴다. 이 Church는 독일말로 Kirche, 화란말로 Kerk인데 이런 말들은 회랍어인 Kyriache에서 나왔다. 그 뜻은 “주님께 속한 것 혹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다. 그래서 Church, Kirvhe, Kerk는 주께 속해진 자들로 lekscp가 교회란 뜻으로 썼다. 서철원, 교회론 강의안, p. 8.

11) Brown, Driver and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874f.

12)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erdmans, 1982

는 100회 정도의 εκκλησια로 번역된 일은 결코 없다. 따라서 신약의 εκκλησια는 구약  $\text{קָהָל}$ 에 더 가깝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text{קָהָל}$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모임을 의미한다면 곧 신약의 에클레시아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 나. 신 약

신약에서 εκκλησια라는 어의는 ‘불러내다’ 혹은 ‘소환하다’라는 의미의 복합동사 “εκκλησια = εκ + κλησια”에서 유래한 것이다. 원래 이 단어가 헬라 세계에서 사용되었을 때에는 “정규적으로 소환된 시민들의 모임이나 입법부”를 의미했다. 즉 전령관에 의해 각자의 집으로부터 시장으로 “불려나온” 헬라 도시국가들의 자유시민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εκκλησια는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며, 시민들의 집회이다. 그리고 이 때의 시민들은 εκκλησια로 일컬어졌다.

그렇다면 이같은 의미의 헬라이어 단어 εκκλησια는 신약의 εκκλησια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L. Berkhof는 εκ(out, out of) + κλησια(call)로부터 파생된 이 εκκλησια의 의미를 신약에 직접 결부시켜 “교회는 인간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온 선택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의문시켰다. 왜냐하면 복합동사 εκκλησια는 결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저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같은 특별한 생각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13)</sup> 오히려 신약의 여러 용례를 볼 때 εκκλησια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신자들의 한 서클인 지역교회, 가정교회, 어떤 지역의 교회들의 한 그룹, 그리고 보편적 유형교회와 보편적 무형교회를 의미했다는 것이다.<sup>14)</sup>

13) L. Bartholf.

14) Ibid.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헬라이어의 ἐκκλησία의 의미가 신약의 ἐκκλησία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미 구약에서 קהל קהל이 동일한 의미를 내포했듯이 ἐκκλησία는 사실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קהל과 신약성경의 ἐκκλησία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구약성경의 집회, 회중이나 “하나님의 총회”는 그 자체로는 구약적인 특수한 의미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다른 한 개념을 그 배후에 깔고 있다. 즉 קהל 자체는 그 집단의 성격을 완전히 규명해 주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란 혈연과 이 혈연에 결부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택 약속에 기초하여서만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 קהל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혹은 이스라엘 중에서 일부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 지정된 때에 지정된 장소에 모인 것을(모인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

ἐκκλησία도 헬라 세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전체나 그 일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공적으로 소집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모임 자체나 그 곳에 모여든 사람들의 ἐκκλησία였다.<sup>15)</sup> 그것은 정당성을 동반하지 않는 모임일 수도 있다. 그 한 예가 행 19:32, 39-41에서 발견된다. 바울의 전도활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데미여신의 이름하에 소동을 벌이던 소요집단이(40절) ἐκκλησία로 불리운다. 그들은 이 모임에 참가한 격조한 군중들이기 이전에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민들이었다.

신약의 교회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의 신분, 결속력, 소속감, 특수 상황 등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런 무엇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이 ἐκκλησία란 단어에 의해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고 있다. קהל은 이스라엘이란

15) E. G. Jay. 교회론의 역사, 주재용역, 서울 : 대한 기독교 출판사, p. 14.

울타리 안에 또 하나의 울타리를 만드는 개념인데 반해 *εκκλησια*는 이 단어가 적용되는 사회에 최초의 울타리를 쳐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εκκλησια*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교회라는 말이 뚜렷하게 기독교적 어휘가 되기는 했을지라도 그 말에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역사가 있다. 헬라 세계를 통틀어서 신약시대까지 교회는 자유로운 도시 국가에서 정구적으로 모이는 전체적인 시민회의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공공업무를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한 전령으로 '불러낸다'는 뜻을 지녔다. 또한 70인역은 히브리어 *קָהָל*을 표현하는 어휘로 사용했으며, 카할은 구약에서 회중,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뜻한다. 스테반은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구약의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 그는 거기서 모세가 '광야교회'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렇게해서 이 어휘는 헬라와 유대가 함께 연관되어 기독교 역사에 들어왔다. 헬라인에게는 이 어휘가 자치적인 민주주의를 암시했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왕에게 복종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신정사회를 뜻한다. 그러나 교회의 일차적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예배의 모임을 뜻한다.<sup>16)</sup>

## 제2절 로마 카톨릭의 교회론

로마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외부적 혹은 유형적 조직체로서의 교회에서 찾는다. 로마 교회는 바로 이 외부적 조직체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조직체는 가르치는 교회 (*ecclesia docens*)로서 사제들, 주교들, 대주교 추기경 교황 등 교권자들

16) Alan Richardson, E. d.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83), p.108.

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그래서 ecclesia docens가 있고 반면에 신자들의 단체인 듣는 교회 ecclesia audiens는 그 속성들을 간접적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17)</sup>

교회론이 제기된 최초의 교부문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클레멘트의 서신」(A.D. 94년경)이었다. 그 후 이그나티우스의 편지(110년), 이레니우스의 「이단논박」(200년경)과 250년경 카르타고의 감독을 지낸 키프리아누스의 「교회의 통일에 관하여」로 교회론은 이어진다. 이들 저작들의 개괄을 보면 논의하고자 하는 개념과 용어들이 자세히 논술되고 있다.<sup>18)</sup> 이러한 사상적 맥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회론이 형성되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교회의 신적 설립

로마 카톨릭 교회는 스스로 「구주의 말씀위에 기초한 신성한 교회」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씀이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 곧 ‘내가 이 반석위에 세우리라’(마 16 : 18)이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로서 그 기원을 그리스도에 두고 있다.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교황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틀림이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 형성된 교회는 이 역사 안에서 가장 완벽한 법적 사회적 구성요소를 지닌 사회로 본다. 그리하여 개인의 신앙체험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설립된 기구, 완전한 통일체로서의 제도적 교회를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성경에 권위를 두는 반면에 카톨릭은 교회에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17) 서철원, 교회론 강의안 p. 11.

18) 한철하, pp.31-150; 에릭 G. 제이, pp. 41-92 참조.

#### 나. 사도적 전승

로마 카톨릭은 마16:18 말씀에 근거하여 베드로의 인간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고, 로마 카톨릭만이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 온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마16:19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람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으므로, 그의 후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교도 인간의 영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9)</sup>

그들에게서 교회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후 동일한 성례전에 참여하며 하나의 가시적 머리(교황)아래 그의 대리자들(주교)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의 의미이다. 이러한 생각은 계층구조적 성직계급과 교황권을 발전시키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제직과 평신도직이라는 이중구조를 갖는다. 교회는 사제직에 의해 지도, 감독되는데 이들 사제들은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한 지상의 대리자 교황과 그의 위탁을 받을 성별된 사람들이다.<sup>20)</sup> 이렇게 로마교회는 교회를 이원화하여 진정한 교회는 사제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고,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준교회라고 한다.<sup>21)</sup>

#### 다. 예전(禮典)의 秘儀로서의 교회

신적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고 그 수행은 사제들의 고유 임무이다. 즉, 사제만이 성체의 취급으로 구원을 인류에게 전달한다. 이 사제직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되어 그의 몸과 피를 성별하여 봉헌하고 분배할 수 있으며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19)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한국문서선교회, 1993, p. 99.

20) 이러한 생각은 이레니우스의 「사도적 신앙의 계승」이 특별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레니우스는 자신이 사도의 뒤를 이은 감독임을 주장한다. 한철하, p.49.

21) 서철원, 교회론 강의안, p. 11.

전권을 부여받았다. 교회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비의(秘儀)를 간직하고  
취급하는 기관이다.

#### 라. 위계제도적 법·국가로서의 교회

사제는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의 후계자로  
서 신-인간의 중보자이다. 서품은 성례이다. 사제는 권위와 거룩, 권능으  
로 입법권, 사법권, 처벌권을 가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위임으로 교황  
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 권한은 연옥에까지 미친다.

#### 마. 전 기독교와 인류의 중심으로서의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교회는 세상과 인류의 중심이다. 교황은 지상에 있는 元首로써,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는 물론 전 세계의  
모든 민족까지 그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다스린다.<sup>22)</sup> 참 교회에 소속된  
증거는 참신앙을 고백할 것과 예전(sacramentum)에 참여할 것과 교황  
에 복종할 것 등이다. 여기에서 키프리아누스의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  
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는 극대화한다. 로마 교회는 기독교의  
핵으로, 우주의 중심으로 그 중앙에는 인간의 죄와 그 사람이 구원의 여  
부를 판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교황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는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제도  
적 구성과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

22) 가르치는 교회가 교황을 정점으로 하나로 조직되어 있으니까 한 교회이고,  
그 교회의 조직이 거룩하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예배모범과 윤리적인 결정  
과 교리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거룩성을 귀속시킨다. 말하자면 그들의 거룩성  
은 성도들의 내적인 거룩이 아니라 그들 교회의 거룩이다. 서철원, 교회론 강  
의안. p. 11.

#### 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카톨릭의 견해

로마 카톨릭교회의 통일성을 말할 때 그것은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을 뜻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의 한 행정조직에 소속함으로써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즉 외부적 조직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직제도의 통일이고, 정체의 통일이다.<sup>23)</sup>

이것을 루이즈 벌코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들은 온 세계의 교회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 담당한 세계적 조직에서 이 교회의 통일성을 찾는다. 교회의 참된 중심은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심원을 가진 성직단에게 있다. 제일 먼저는 사제와 기타 하위직원들로 구성되는 보다 넓은 하급 성직단이 있고, 다음에는 보다 적은 주교단이 있고, 다음에는 이 보다 좁은 주교교단이 있고, 마지막에는 가장 제한된 추기경단이 있는데. 이 전체 피라미트의 정상에는 전 조직체의 유형적인 원수인 교황이 있어서 그 밑의 모든 성직자들을 절대적 권한으로 다스린다.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매우 웅장한 구조를 제시한다.<sup>24)</sup>

### 제3절 루터의 교회론

루터가 성경 전체를 다시 읽을 수 있었고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과 후기 중세기 스콜라주의 신학 등을 비판할 수 있었고,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재발견과 이신칭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로마교회에 대항하여 교직제도 보다는 만인제사장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부분을 차지했던 성도들 자

23) 하문호, 「기독교의신학」. IV, 교회론(삼영서관, 1980), p. 88.

24)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erdmans, 1982), p. 572

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의 교제등을 중시하였다.

#### 가. 이신칭의와 교회론

루터는 롬 1 : 17에 나오는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와 이것을 수용하는 '신앙'을 연결시켜서 이신칭의를 이해하였다. 이 '복음'(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신앙으로 사용하므로써 칭의(稱義)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루터는 후기중세기 스콜라주의와 신비주의의 공로주의, 중세 로마카톨릭의 모든 공로주의 및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공로주의를 그의 다음 로마서 주서의 주제에서 '모든 인간의 의와 지혜'로 보고, 이것을 여지없이 때려부수고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신칭의의 경험은 성경이해의 열쇠가 되었고 성경에 근거한 모든 신학적 주제들의 초석이요 시금석이 되었다. 루터는 이 이신칭의야말로 "모든 종류의 교리들을 판단하고 모든 교회의 가르침들을 보존하고 지배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구원의 경험(이신칭의) 혹은 성령을 통한 복음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였고 성경에 기초한 모든 신학적인 주제들을 추구하였다.

#### 나. 말씀의 피조물인 교회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보다 우월하고 이 말씀의 피조물인 교회는...."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씀'은 복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서이다. 말씀의 선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sup>25)</sup>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업(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이다. 특히 이 복음은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시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25) William Placher,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83), p. 267.

다.

그가 말씀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모든 신적인 은총의 수단, 곧 말씀, 세례, 성찬, 신적 지시, 양심의 위로, 하나님에의 경외 하나님에의 신뢰,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스도를 닮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6)</sup>

루터는 구원론적 통찰력에 의하여 성경의 중심주제를 '복음'으로 보았고, 성경의 내용을 율법과 복음으로 본다. 루터는 교회를 '입의 집'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의 책들이 쓰여지고 읽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들은 반드시 말해져야 하고 경청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무 것도 기록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셨을 뿐이시다. 사도들은 별로 쓴 것이 많지 않다. 이들은 더 많은 것을 말했다. 새 언약의 교역(ministry)은 죽은 돌비에 적혀져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이다.

루터의 말씀론은 3중적이고, 2중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각각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셋은 하나이다. 그리고 이 각각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2중성을 갖는다.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이다. 따라서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 위에 있다.

#### 다.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

교회는 본질적으로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sup>27)</sup> 교회란 이신칭의 얻은 '성도들의 회중'(혹은 회집)인바, 이는 말씀의 피조

26) 폴 D. L. 아비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이기문 역(서울 : 컨콜디아사, 1987), p. 102.

27) J. L. 니이브, 「기독교 교리사」(서울 :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2), p.361.



물이다. 즉 성도들이란, 로마카톨릭이 주장하는 골로주의에 입각한 ‘성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한 모든 믿는 사람들 ‘성령에 의하여 회집되고 보존되고 지배받고’ 나아가서 ‘매일같이 성례(세례와 성만찬)에 의하여 그 수가 증가되는’ 무리들이다. 성도들의 교제란, 무엇보다도 기도를 비롯한 기독교인(이신칭의)의 모든 선행의 나눔이다. 교회는 선물에 근거한 과제요, 이같은 ‘성도들의 교제’는 루터의 만인제사장직의 근거요, 이 만인제사장직 사상은 루터의 교직론의 기초이다. 교회는 성직 계급 중심의 교회에서 벗어나 신자 중심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본래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루터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다.<sup>28)</sup>

#### 라. 만인 제사장론

루터는 로마카톨릭교회의 계층 질서적 성직체제에 반대하여 ‘만인 제사장설’(the universal priesthood of all believers)을 주장하였다. 복음을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은혜와 성령에 의하여 은혜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a believer)은 평신도로서 이웃사랑의 차원, 곧 성화(순종)의 차원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평신도의 이웃사랑 내지는 성화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직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동참하여 다른 기독교인을 위한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a little christ)로서 이웃을 향한 ‘넘쳐흐르는 사랑’(quellende Liebe)을 통하여 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서로가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를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28) 루터는 교회건물을 뜻하는 kircheqheksms 성도의 교제(communiosanctorm)를 즐겨 사용한다.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사,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8), p.58.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한다.<sup>29)</sup> 그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벧전 2:9)는 말씀을 중요시한다. 만인제사장직은 특권일 뿐 아니라 책임이며, 신분이자 봉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고 한 "떡"(루터가 좋아하는 이미지)으로 만드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통일과 평등은 서로에 대한 상호적인 사랑과 관심에 의하여 입증된다.<sup>30)</sup> 성직자와 평신도는 다 같은 성도로서 성직자는 다만 교역의 사무를 맡는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sup>31)</sup> 이는 사제의 직이 지위나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의무로 이해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루터의 개혁운동이 해방의 운동이요, 해방의 신학이라는 점에 있다.<sup>32)</sup>

#### 마.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교회는 본질상 *communio sanctorum*이지만 그 선택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 때문에 「감추어져 있고 불가시적」이다.

루터는 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이 경험적인 교회를 보면서 '내적인 기독교', 곧 제 1의 것, 본래적이고 근본적이며 순수한 것과 '외적인 기독교', 곧 사람이 만든 제 2의 것 외면적인, 신체적인, 외적세계를 구분하게 된다. 이는 멀리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개의 도성, 두 왕국, 두 영역(realm)에서 온 것으로 루터는 먼저 복음과 율법의 구별에서 시작하고 있다. 루터는 '가시적' '불가시적'이라는 말보다는 육적, 영적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혼과 육체 사이의 관계처럼 분리하여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두 가지 교회 역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신령한 불가시적

29)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장신대출판부, 1984), p. 141.

30) 티모디 조지, 「개혁자들의 신학」 이은선, 피영민 역, (요단출판사, 1994), p. 109.

31) 이장식, 「기독교사상사」 2:219.

32) 폴 D. L. 아비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p. 126.

교회는 말씀의 교회로서 외부적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거듭남을 가져다 주고 보이는 교회의 성례전은 그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sup>33)</sup>

## 제 IV 장 칼빈의 교회의 본질

칼빈의 교회관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처음에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예정론에 입각하여 교회의 불가시성만을 강조하였으나,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그에서의 사역 이후 가시적인 교회를 강조하였다. 그는 「기독교강요」 1536년판의 헌정사에서 교회의 가시성만을 주장하며 계급적인 성직계계를 내세우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의 불가시적인 측면을 언급하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과 성례전을 합당하게 행하는 가시적 교회의 표지를 언급하였다. 이와같이 칼빈은 카톨릭의 교회관을 비판하기 위하여 교회의 불가시적인 측면을 내세우면서도 교회의 가시적 측면인 교회의 표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sup>34)</sup>

칼빈의 “교회의 본질”에 관한 교리를 취급함에 있어서 “신의 주권성”(the Sovereignty of God)을 같이 취급해야만, 종교개혁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밝히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회의 통일과 분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의 주권” 문제는 그의 모든 해석원리의 열쇠가 되고 있다.

33)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p.225; 그러나 교회는 마술적 예전적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지는 않는다. J. L. 니이브, p.362.

34)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253

## 제1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개념

칼빈의 교회이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그 표현이나 의미에 있어서 “어머니로서의 교회”보다도 더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시켜 주는 개념이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세우신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연합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며, 머리되시는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장하며 따라서 피차 일치에 이르게 된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에 비유하여 교회의 본질을 설명한 바 있다. 35) 교회가 보편적이고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를 머리고 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서로 지체로서 연결되어(롬 12:5; 고전 10:17; 12:12, 27) 서로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엡 4:16)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엡 1:22-23)36) 이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한 것으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영적, 생명적 연합성을 보여준다.

칼빈이 이러한 성서의 가르침을 확대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의미는 교회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본질성과 그리스도와 성도의 불가분의 연합성과 함께 교회의 단일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37) 이러한 견해는 필연적으로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는 생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로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시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38) 칼빈은 지체 개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격성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질서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개인이나 단

35) 에베소서 4 : 4, 5 : 23-30.

36)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199.

37)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 Erdmans, 1983), p.

64.

38) 골 1 : 18, 엡 1 : 22 참조.

제도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그 통치자가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카톨릭과 현대신학, 연합운동들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위주의 교회관에 대해서 칼빈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의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칼빈에게 교회의 일치에 관한 넓은 지평을 제공해 준다. 즉, 칼빈처럼 개개인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하나됨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이 먼저 경험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됨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카톨릭적”이라거나 “보편적”이라고 한다. 만일, 누가 교회가 둘이나 셋이 있다고 할 때 그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여러 조각으로 찢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은 본래적인 의미의 교회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칼빈은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라는 표현에서 교회의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sup>39)</sup> 이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서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며 이 모든 은사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0)</sup> 이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확신이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든 지상적인 공동체나 종교단체의 교제와 구별되는 것이다.<sup>41)</sup> 칼빈은 교회안에서의 교제를

39)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는 어느정도 외적인 교회에 적용된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니”가 필요하다. 칼빈은 여기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in이라는 전치사가 없는 것에 주목한다. 교회는 하나님과 같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오토 베버, p. 53.

40) 「강요」 4. 1. 3.

통해서 성도들을 상호의존케 함으로서 파괴적인 주권행사를 제거하며 또한 그 안에 어떤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sup>42)</sup>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됨으로써 그의 교회의 유일한 지배자이시다. 그러므로 교황과 같은 한 개인에게 지배권을 양도하지 않으신다. 신자의 봉사는 각 지체들 상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 상호의존은 개인의 독주를 막게되는 것이다.<sup>43)</sup>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본질적인 것이며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모든 개인이 주님을 배우고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올바른 방도를 사람들은 다만 그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지체로서의 교회는 긴밀한 교제속에서 성장의 목적성을 전제한다.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데서 살아 있는 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 제2절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루터에게서 칭의론이 그의 교회론의 기초가 되어 있듯이 칼빈에게서도 그의 예정론이 교회론의 기초가 된다. <sup>44)</sup> 즉, 칼빈에게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는 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지고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구원받은 총수이다.<sup>45)</sup>

41)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3, p. 187.

42) Ibid, p.188.

43) 이종성, 「칼빈- 생애와 사상」, p. 138.

44)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4), p.175.

45) 「강요」 4. 1. 7, 8.

교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예정하신 신자들이며 모임이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택이다.”

칼빈은 불가시적 교회와 그 표지를 주장하면서 루터와는 달리 예정론을 교회론의 토대로 삼아 불가시적인 교회를 예정론과 결합시켰다. 그는 예정론에 근거하여 불가시적인 교회를 정의하였다<sup>46)</sup>.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불가시적 교회가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분만이 아시는 예정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그 예정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므로 교회는 말씀과 예정을 중심으로 모여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오는 것이며, 이 구원의 단체인 교회의 회원의 자격의 근거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앙에 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조립되어지며 교회가 영원 불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 신자들을 영원히 붙드신다. 또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신자들과의 사귄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다.

칼빈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교회밖에도 많은 양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많은 이리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칼빈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교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회원의 정확한 한계선이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가시적 교회론은 그의 예정교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진다. 이와 같은 교회 이해는 루터에게서 볼 수 없는 다른 것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이다.<sup>47)</sup> 이 불가시적 교회의 교리는 원래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티스트와의 논쟁에서 발전시킨 교회론이었는데, 칼빈에게 이르러 실제적인 의의가 가미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

46)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 255.

47)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p. 229.

의 영혼과 같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에서 유리되어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칼빈이 프랑소와즈 황제에게 보낸 편지속에서 발견되어지기도 한다. 즉 교회는 외부적인 형체가 없이도 자존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로마카톨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상형이라고 말하는데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sup>48)</sup>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분리는 어거스틴 때부터 주장된 것이었는데 중세기 말에 이르러 위클리프(John Wycliff)와 후스(John Hus)가 이를 다시 제창하였다. 종교 개혁 때에 와서는 루터와 쾰링거는 물론 재세례파들도 이러한 구별을 말했다. 이 문제는 종교개혁 당시 실제적이고도 심각한 질문이었다. 즉, '종교개혁은 보편적인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였다.'는 주장과 '개혁자들은 분리주의자이다'라는 비난이 있으며 신자들로부터는 '나는 과연 참된 교회에 속하여 있는가?'라는 교회론적 질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참된 교회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있다.<sup>49)</sup> 칼빈은 이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논하게 되었다. 칼빈은 1543년 이후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의 특이한 논리로 이를 말하고 있다.

1536년 판에는 선택이 주는 위로를 말하고 선택을 높이 찬양하면서 참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구별할 수는 도저히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가시적 교회나 불가시적 교회를 실제로 구별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음이 명약관화이다. 칼빈이 다루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이나 이것만이 실제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sup>50)</sup> 칼빈은 「기독교강요」 최종판의 4권 1장 2절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신경에서 우리가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조

48) 이종성, 「칼빈-생애와 사상」, p. 139.

49) 오토 베버, p. 58.

50) Ibid, pp. 48-49.



함은 가시적 교회뿐만 아니라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며,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다” 라고하였다.<sup>51)</sup>칼빈은 여기서 교회의 가시적면과 불가시적인 면을 동시에 언급하였으며, 그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가시적 교회가 강조된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그는 경험적인 교회를 말할 때도 늘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총수로 구성된 불가시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므로, 「기독교강요」의 최종판에서 표명된 칼빈의 성숙한 교회관은 가시적인 측면과 불가시적인 측면을 가진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다<sup>52)</sup>.

사람들의 징표로서 인식할 수 있는 교회는 언제나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교회이다. 여기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얻는 것은 아니다. 불가시적 교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사람들의 집합이다. 이는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다. 이 불가시적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심을 입은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것이다.

칼빈의 불가시적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로마카톨릭교회의 교회관에 대한 반대였다. <sup>53)</sup> 그는 초기에는 비교적 가시적 교회에 관한 관심이 적었다. 그 이유는 칼빈이 로마카톨릭교회와의 결별에 기인하였다. 그가 이 로마카톨릭교회를 “진흙탕”으로 여기게 된 것은 그의 말대로 “갑작스런 회심”의 결과였다. 후일 스트라스부르그 목회와 제 2차 제네바 기간을 통하여 또한 부처와 접촉하면서 가시적 교회도 중요시하게 되었다. 칼빈이 가시적 교회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은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개념이다. 또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고는 전통적 카톨릭의 사고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스트라스부르그의 부처의 영향 때문이며 칼빈 자신

51) 「기독교강요」, 4, 1, 2

52)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서울:기독교문서서선교회, 1997, p. 255.

53) 이종성, 「칼빈- 생애와 사상」, p. 138.

이 루터교회에서 특히, 재세례파의 무정부 상태에서 일종의 무질서를 보게 된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칼빈에 있어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는 플라톤적 이원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불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예정교리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눈에만 보일 뿐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뜻에서 불가시적이다.<sup>54)</sup> 이것은 '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칼빈이 두 종류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가시적인 교회에 대하여 불가시적 교회를 비판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이 가시적 교회로부터 도피하여 하나의 환상적인 교회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회중으로서의 교회라는 교회의 참된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이다. 또 여기서 불가시적 교회가 강조된다고 해서 가시적 교회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sup>55)</sup> 칼빈은 선택의 관점에서 교회론을 세웠는데, 이것은 루터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즉 우리의 구원은 확고부동한 초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기관이 무너져도 교회는 튼튼히 설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여 있으며 그의 영원하신 섭리는 약화되거나 흔들리지 않겠기 때문이다."<sup>56)</sup> 칼빈은 하나님만이 교회의 적극적이며 본래적인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실제로 구별하는 일에 주저하면서 이 두 교회를 중첩하는 두 개의 「同心圓」으로 설명한다. 그의 가시적, 불가시적 교회에 관한 논술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하는 종교개혁적 이상의 실현의지인 동시에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할 가시적 교회의

54) 루이스 벨콕, 「기독교 교리사」, 신복윤 역(서울 : 성광문화사, 1986), P. 276.

55) Ibid.

56) 「강요」 4. 1. 3.

실제적 모습에 대한 관심이다. 57) 칼빈에게 있어서 불가시적 교회는 선택된 수라는 점에서 참교회이고 불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예정된 자들이 역사속에서 현현(단체에 나오는 순간)되고, 합체(제도화되는 순간)되게 하는 진정한 도구라는 점에서 참되다.58)

### 제3절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IV권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초대하시고 이 연합을 지속시키는 외적인 수단(혹은 보조역할)”이라고 쓰고 있다. 칼빈에게서 교회는 또한 신자의 어머니이다. 그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무지하고 나태한 속성이 있는 고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생겨난 후 그 신앙이 점점 돈독해지고 목적을 향해 가는 데에는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어떠한 사람도 교회의 보살핌에 끊임없이 그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믿음의 양육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외적 수단이였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키움에 있어서 단번에 온전케 하실 수도 있으나 그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장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교회의 양육 아래 두기를 원하셨던 것이다.59)

---

57) G. S. M. Walker, "calvin and Church",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p. 219.

58) 칼빈주의에서는 가시적 교회에서 구원받고 못받는 문제는 구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의 정화 운동에는 계속 노력해야한다고 한다. 불가시적 교회는 중생한 교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누가 중생했는지 알수 없고, 이들은 또한 여러 교회, 여러 교파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한다. 가시적 교회에는 교파가 있으나 불사지적 교회 안에서는 교파가 있을 수 없다(엡 5:8, 골 1:13, 벵전2:5)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한국문서선교회, 1988, p. 98.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평생 떠날 수가 없고, 또 떠나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한다. 교회는 바로 신앙을 통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신자를 돌보기 때문에 이같은 비유적 말을 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삶의 모든 면에서 교육하고 양육하며, 그들을 강화시켜 마침내 그들을 관성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머니이다.<sup>60)</sup> 이를 근거로하여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로 이해하였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서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성적 은총과 영적 생명의 특별한 증거는 한정되어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언제나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sup>61)</sup> 그 어머니는 우리를 신앙으로 잉태하고 낳으시며 젖을 먹여 길러서 모든 신자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도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죄의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교회라고 하는 모태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는 거 이외에 아무런 다른 길도 없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가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복음적 목회가 계속되게 하기 위하여 보물을 교회에다가 주셨으며 그 임무를 목사와 교사에게 맡기셨다.(엡4:11)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해 진 것이며, 이에 칼빈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장소에서만 인간적이며 지상적인 조건 안에서 우리와 만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옛 구절

59) 니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3, p. 185

60) 티모디 조지. 「개혁자들의 신학」 이은선. 피영민 역, (요단출판사, 1994), p. 280.

61) 나용화, 「칼빈의 기독교강요 개설」,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144.

을 다시금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은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말씀  
을 소유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신앙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곳이다.<sup>62)</sup>

#### 제4절 선택받은 자로서의 교회

칼빈은 교회를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로서 묘사했다. 교회란 가전적인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에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선민을  
가르킨다.<sup>63)</sup>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숨겨져있는 선택이다. 하  
나님의 선택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전체로서나 개  
인으로서나 그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우리는 교회로  
서 그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가 전부의 소유주이시다. 그 분만  
이 교회에 대해서 최초의 말과 최종의 말을 가지고 있다.

칼빈은 교회의 계속성을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그의 다함이 없는 신실하심 속에서 성령  
으로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믿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에 하나님의  
선택을 항상 교회론의 테두리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는 교회론을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주께서 자기 백  
성을 아신다"(딤후 2: 19)는 말씀은 칼빈은 얼마나 자주 인용하는지 모  
른다.<sup>64)</sup>

특히, "기독교 강요" 초판과 요리문답서에 보면 교회의 이러한 본질  
면을 드러내고 있다. 즉 교회는 죽은 사람이나 산사람 할 것 없이 선택  
받은 무리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이와 같이 교회 정의

62) 이근삼, "칼빈의 교회관", 「교회문제연구」 1집, 교회문제연구소, 1987, p. 11

63) 니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대한기독교서회, 1973, p. 188.

64) 「기독교강요」, 4. 1, 2

에 있어서 선택 교리를 사용하는 것은 루터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칼빈적인 특징인데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선택과 교회를 연결한 것은 칼빈 자신의 생각이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기인한다. 여기에 인간의 모든 자기 영화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번에 뿌리 채 뽑혀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선택교리야말로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서 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확고하게 신의 확신에 거하게 한다. 이러한 은혜의 선택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교회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이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이세상에서 강하게 된다. 이 교리는 교회로부터 그것의 모든 지주를 빼앗아가는 것이나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의 모든 공격에 대하여 불굴의 체제를 확신케 된다.<sup>65)</sup>

하나님의 선택은 모두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한 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되고 밀착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선택 교리는 인간적인 요구들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확고하게 하나님의 확신에 거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공격에 대하여 불굴의 체제를 확신케 하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봉사하는 동안 필요한 안정과 확신과 및 저항력을 부여한다. 또한, 교회에 주어진 신앙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므로 모든 신자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한 몸으로 성장되고, 한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동일한 영생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sup>66)</sup>

65) 니젤, 「칼빈의 신학」, pp. 188-189.

66) 「기독교강요」, 4, 1, 2

## 제 V 장 칼빈의 교회의 기능

교회의 표지는 가시적 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루터와 멜랑히톤이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에서 인정한 것처럼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객관적인 표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제도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칼빈은 이와 같이 말씀의 사역과 성례전의 집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한다. 67)

칼빈은 이 두가지 표지 외에 삶의 모범 곧 말씀과 성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언급한다. 워커는 칼빈이 권징을 교회의 제3의 표지로 가르쳤다고 주장하나<sup>68)</sup> 니이젤은 칼빈이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서가 아니라 참된 신자, 곧 개인에 대한 판단으로서 언급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불가시적 교회에 속한 참된 신자가 누구냐에 대한 판단이지 가시적 교회 중에서 어디에 참된 교회가 있느냐에 대한 표지는 아니라는 것이다.<sup>69)</sup> 방달 역시 칼빈에 있어서 권징은 물론 중요했지만 교회개념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다.<sup>70)</sup> 칼빈에게서 권징은 교회론에 대한 방어의 표준이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의 성화의 과정이지 그것이 곧 교회의 참다운 표지는 아닌 것이다.

오토 베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칼빈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즉 칼빈은 선포되는 말씀에 교

67) 「강요」, 4. 1. 9.

68) G. S. M, Walker, p. 226.

69) 니이젤, p. 198.

70) 방달, 「칼빈의 신학서론」, 한국칼빈주의 연구원편, (서울 : 기독교문화사, 1986) p. 301.

회론의 중심을 두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의 권징에 순종하는 실천을 낳는다. 그러므로 권징은 교회의 독자적인 행위이거나 인간의 행위에 의한 제3의 표지는 아니다.

## 제1절 말씀 선포

### 가. 선포되는 말씀

칼빈은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사 59:21)는 말씀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교하는 직분(목사와 교사)을 통하여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참 교회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을 그의 종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순하고 신실하게 선포되는 곳」이다.<sup>71)</sup> 하나님은 교회를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절망한 사람을 소망으로 이끄신다. 확실히 교회는 “외적인 형식으로라도 설교에 의하지 아니하면 세워질 수도 없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거나 자라게 할 수 없다.”<sup>72)</sup>

하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는 첫째로 인간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고 둘째로 듣는 사람을 시험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가르치고 배우는 중에 상호간의 사랑을 키울 수 있다.<sup>73)</sup>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많은 숭고한 은사들 가운데서 가장

71)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p. 231.

72) 「강요」, 4. 1. 5.



독특한 사람들이 입과 혀를 하나님을 위해 성별하고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게 한 것이다. 말씀의 선포를 위임받은 설교자의 중요성은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데 있다.<sup>74)</sup>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또한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성령의 행위 안에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들은 자가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가 되도록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한다. <sup>75)</sup>

그러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의 순환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 닿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나로 남아 계셨으며 하나님 자신인 분이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모든 계시의 원천”이다.<sup>76)</sup>

설교말씀은 또한 세계 내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수단이기도하다.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된 복음으로 주의 나라는 확장되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된다. 주님의 왕국은 복음의 설교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전파되는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다스릴 때 사용하는 홀인 것이다.<sup>77)</sup> 말씀의 설교에 의한 교회의 통치는 결코 인간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장 거룩한 규례이다.

칼빈의 이와 같은 주장은 로마카톨릭교회가 말씀의 권위 위에 교회를 두고 교회에 의한 전횡으로 교회를 다스린 데 대한 교리적 반대이다. <sup>78)</sup>

73) 「강요」, 4. 3. 1.

74) 「강요」, 4. 1. 5.

75) 「강요」, 4. 2. 1-2.

76) 「강요」, 1. 13. 7.

77) 「강요」, 4. 1. 4.

78) 루이스 벨컴, 「기독교 교리사」, p. 279.

#### 나. 성령의 내적 증거와 조명

칼빈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단순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 모두 불완전하다고 말한다. 우리의 이성은 눈이 멀고 마음이 부패되어 성령으로 조명되기까지는 의심과 불안뿐이다. 또 그 성령의 증거는 모든 이성적 증거보다 탁월하다. 언제나 성도들은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했을 경우 항상 성경의 증거하심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훨씬 능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말씀에 합당한 증거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에 의하여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말씀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79)</sup>

나아가 그는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받은 자라야 성경에 의존하다”<sup>80)</sup>고 말한다. 칼빈은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임으로, ‘성령의 내적 조명’은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깨우치시는 것으로 말하는데 이러한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이 벗는 성경 그대로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sup>81)</sup>

그는 당시의 열광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성령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 내거나 어떤 새로운 교리 체계를 만들어 용인된 복음의 교리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말하는 그 교리를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신다”<sup>82)</sup>라고 말한다. 따라서 설교 말씀에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말씀

79) 「강요」, 1. 7. 4.

80) Ibid., 1. 7. 5.

81) Ibid., 3. 2. 33.

82) Ibid., 1. 9. 1.

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말씀으로만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연합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곧 내적 증거와 조명을 통하여 이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 83)

## 제2절 교회의 성례전

칼빈의 성례전의 특징은 그가 두 성례의 공통된 성질을 발견하려고 시도한 데 있다. 라틴어로 말하자면, sacramenta in genere의 교리이다. 칼빈은 이 두 성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써,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는 세례와 성만찬을 이러한 징표로 주신 것이라고 설명한다. 84)

성례전은 우리의 믿음을 받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이다. 한편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85) 왜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연합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우리의 연합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수단의 하나로서 성례전을 언급하였다. “성례는 주께서 우리의 신앙의 약함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를 향한 그의 선의의 약속들을 우리 양심에 인치는 외적 표시라고 말한다면 간단하고 고유한 정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주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에 대한 우리의 경건을 증거한다” 86)고 칼빈은 말한다.

83) Ibid., 4. 2. 4.

84) 오토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서울 : 풍만출판사, 1985), p. 125.

85) 「강요」, 4. 14. 1.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 곧 ‘신령한 것의 보이는 표’ ‘보이지 않는 은혜의 형태’를 받아들인 것이다.

86) 「강요」, 1. 14. 1.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성례를 “거룩한 것의 가시적 표시” 혹은 “불가시적 은혜의 가시적 형태”<sup>87)</sup>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감각적 표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지만<sup>88)</sup>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시험을 받으며 완전하지 못한 연약함에 있다.<sup>89)</sup>

성례전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증강시킨다. 칼빈은 성례의 肉的인 성격을 주장하는데, 즉 육적이라고 할 때 성례가 인식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성례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지체를 이루는 것의 징표라는 뜻에서 육적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성례전이 말씀보다 앞서는 점이 그것이 우리의 시각과 감각에 의뢰함으로서 “약속을 우리에게 사생화를 그리듯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sup>90)</sup> 그래서 칼빈은 성례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봉한다<sup>91)</sup>고 하기도 하고, 공문서에 찍은 도장에 비교하기도 한다.<sup>92)</sup>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화체설과는 달리 복음과 복음의 수용을 전제하는 표적, 표지, 인장, 보증으로서의 성례전을 보게된다.<sup>93)</sup> 성례는 말씀과 언약에 첨가 된 것이어서 성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믿는 자는 성례가 없이도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것을 성례를 통하여 주관적으로 확인한다. 즉, 성례는 그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통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다.<sup>94)</sup>

---

87) Ibid.

88) Ibid., 3. 2. 15.

89) Ibid., 3. 2. 7.

90) 「강요」, 4. 14. 5. 칼빈은 여기서 성례전에 참석하기전 설교를 통하여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강조함으로 로마 카톨릭교회를 반대하고 있다.

91) Ibid., 4. 17. 4.

92) Ibid., 4. 15. 5.

93) 칼빈에게서 실체와 표지는 구별되는 동시에 분리되지 않는다. 이로써 그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opus operatum 교리를 비판하는 동시에 성례는 상징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실체와 표지를 분리하는 쾰빙글리를 반박한다.

94) 오토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풍만출판사,1985), pp.127-128.

칼빈은 넓은 의미에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성례들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적인 사물을 통해서 이런 표시들을 제시한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창 2 : 9), 노아에게 무지개(창 9 : 13-16), 아브라함에게 연기뿜는 가마속에 나타난 횃불(창 15 : 17), 기드온에게 양털을 적신 이슬(삿 6 : 37-38)등을 주셨다. 이것은 그들의 약한 신앙을 북돋아 주고 굳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역시 성례였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와 확증으로서 사용되었다. 구약의 할례, 결례, 희생제사 역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신약에 나타나는 성례의 모형이 된다.<sup>95)</sup>

#### 가. 세례

세례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것이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은사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죄사함에 관한 것이다. 세례를 받을 때에 전생애의 모든 죄악이 모두 도말되고 용서된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질 때는 다시 이 세례의 기억으로 돌아와서 동일한 신앙을 확증하여야 한다고 한다.<sup>96)</sup>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삶에 관한 것이다. 그는 로마서 6: 3-5, 8등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에 의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케 하신다고 한다.<sup>97)</sup> 그러므로 세례는 죄의 무조건적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전가(imputatio)를 확증하고 표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삶에

95) 「강요」, 4. 14. 18.

96) Ibid., 4. 15. 3.

97) Ibid., 4. 15. 5.

로 갱신되는 것을 표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접붙여지는 것을 확증하고 표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나누어 가짐을 확증하고 표시한다.<sup>98)</sup> 빌헬름 니이젤은 세례가 갖고 있는 이 세가지 의미 중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즉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sup>99)</sup>

그러나 여기에 신앙과 세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루터교와 로마 카톨릭의 견해는 그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례 자체가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예를 들어 고넬료가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100)</sup> 그는 성례를 받기 이전에 벌써 기독교신자였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있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efficiens)은 아니다. 아무도 세례가 고넬료의 믿음을 루터가 이해하듯이 강하게 한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세례는 다만 하나의 징표(signum efficiens)일 뿐이다.<sup>101)</sup> 그가 신앙과 성례 중에 그 어느 하나를 택하고 싶지는 않았음이 분명하다. 믿음이 없이는 세례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례를 하나의 징표로서 필요로 하며 양자는 서로 관련되고 있다.

또한 칼빈은 유아세례에 관한 주제를 두고 기독교 강요의 한 장(章)을 전부 할애한다. 칼빈은 유아세례에 대한 성서적 예로서 구약의 할례를 들고 있다. 세례에도, 할례에도 그리스도가 원천이며, 외형만 다를 뿐 다 같은 약속이며, 구약에서 보다 신약에서 그 은혜가 더욱 증가되고 확실해졌다. 칼빈은 유아세례의 교리적 근거를 마가복음 10장에 두며 사도

98) Ibid., 4. 15. 6.

99) 오토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 풍만출판사, 1985) p. 129.

100) 「강요」, 4. 15. 15.

101) Ibid., 4. 15. 14.

행전의 온 “집안”이 세례 받은 일을 사례로 든다. 그러나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6-20절의 말씀이다. 세례는 제정된 것이고 또 이 제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교훈의 자녀들”과 “신자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은 중요하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믿는 배우자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깨끗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다.<sup>102)</sup> 칼빈은 중생을 세례의 효능의 하나로 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례는 중생을 일으키는 징표는 아니고 징표를 효력있게 하는 “것”(Sache)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유아세례를 인정하면서, 집례자와는 무관하게 성례전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므로 (ex opere operato) 당연히 재세례를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sup>103)</sup>

#### 나. 성찬

세례가 죄의 용서와 거듭남, 회개, 하나님의 자녀됨 등을 확증하고 표시한다면, 성찬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평생토록 양육하는 영적양식이다.<sup>104)</sup> 여기에서 ‘생명의 떡’은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sup>105)</sup> 성찬은 바로 이 생명의 공급과 양육을 확증하는 표시인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떡이요, 음료임을 표시라고 확증하는 것이다.

성찬은 또한 그리스도와 혹은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연합된 것을 상징하고 보증한다. 칼빈은 그의 성찬 교리를 십자가에 단번에 (once for all) 돌아가신 것과 관련시킨다. 복음에 대하여 생소한 불신자나 성찬의 의미에 대한 설교없이 행해지는 성찬은 바르게 집행될 수 없

102) 오토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 풍만출판사. 1985), p. 133.

103) 「강요」, 4. 15. 18.

104) Ibid., 4. 17. 1.

105) Ibid.

다.<sup>106)</sup>

칼빈은 성찬에 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화체설이나 루터의 편재설(공재설), 그리고 쯔빙글리의 기념설등이 성찬의 올바른 징표로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 설들은 어느 한편을 지나치게 평가한 것이라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말함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먹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찬을 취하는 것은 신앙의 결실의 효능이기 때문이다.<sup>107)</sup> 그는 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화체설을 비판한다. 성례는 영적인 사실에 대한 유비로서 몸이 빵과 포도주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혼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성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 없이 성찬에의 참여는 무의미하다. 그는 또 교황주의자들의 ‘주술적인’ 성례에 반대하는 한편 합당치 않은 자의 성찬 참여를 반대한다. 성찬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예식으로 합당치 않은 자의 성찬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고전 11 : 9)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찬은 완전한 사람, 의인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강성시키며 고무하고 자극하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sup>108)</sup>칼빈은 성찬에 합당한 자의 조건으로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신앙과 사랑을 내세웠다. 그러므로 칼빈에 있어서 성만찬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6) Ibid., 4. 17. 5.

107) Ibid.

108) Ibid., 4. 17. 42.



칼빈은 이러한 권징의 최종적 권한을 어떤 한 목사나 성직자에게가 아니라 정당한 교회의 회의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칼빈은 치리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도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법정에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임재를 미리 말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sup>112)</sup>고 한다. 즉, 권징은 결국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관련이 깊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시고 그의 말씀에 주셨다. 인간은 그 말씀의 봉사자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판단을 멸시하거나 경솔히 여겨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이것이 그 자신의 선포라는 것과 그들의 땅에서 한 일을 하늘에서 인준하시기 때문이다.

#### 나. 교 직

교회가 인간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씀과 성례전이 집행되며 권징이 실시되는 곳이라면 교회에는 그것들을 맡아 봉사하는 교직자들이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일인 것이다. 칼빈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의 권리와 명예를 넘겨주시지는 않지만, 일종의 대리자로 택하심으로써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다. <sup>113)</sup>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로마서 12장 7, 8절에 근거하여 네 가지

111) F. 방달, p. 301 ; 폴 D. L. 아비스, p. 48. 권징은 그에게서 중요한 것이었으나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의 아니라 신앙하는데 속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치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지 단순히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112) 「강요」, 4. 12. 7.

113) Ibid., 4. 3. 1.

직분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 교회의 통치를 주관하는 자들은 바울에 의해 첫째로 사도들, 다음으로 예언자들, 셋째로 복음 전도자들, 넷째로 목사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라 불리운다(엡 4 : 11). 이들 가운데 목사와 교사들은 교회안에서 일상적인 직책이다. 주님은 그의 왕국을 시작해서 처음의 세 직책을 세웠으며, 때때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들은 일으킨다.<sup>114)</sup>

칼빈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봉사직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을 집행하는 목사직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보호직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시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며, 자기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려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손을 통해서 지도하시게 해야 한다. 복음의 사역은 성령과 의와 영생의 시행이므로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그것보다 더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으며, 이러한 사역을 멸시하거나 쓸데없는 것처럼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sup>115)</sup>

다음으로, 칼빈이 생각한 교사는 단순한 교사라기 보다는 신학자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은 권징, 성례집행, 훈계, 권면을 말지않고 다만 성서해석을 맡는다. 이는 신자들 사이에 온전하고 건전한 교리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목사직은 이 모든 것을 그 자체안에 내포하고 있다.<sup>116)</sup>

칼빈에게서 장로는 신자들로부터 선출된 자들로서 감독들과 함께 도덕에 대한 책망과 권징의 실행을 맡은 이들이다. <sup>117)</sup> 칼빈은 디모데전서

114) Ibid., 4. 8. 4.

115) Ibid., 4. 3. 3.

116) Ibid., 4. 3. 4.

5 : 7을 인용하여 두 종류의 장로, 즉 말씀에 종사하는 장로와 설교에는 종사하지 않으나 다스리는 일에 관계하는 장로가 있다고 말함으로 장로에는 두 명칭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칼빈은 교직체계에서 장로는 말씀이 아니라 권징을 맡는 직책이다.<sup>118)</sup>

장로직에 대해 칼빈은 presbyteros 라는 단어가 연령이 아니라 직분은 기술된 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디모데는 나이가 아주 어렸다. 칼빈은 제네바에 초청을 받았을 때 단지 27세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신과 디모데에게 적용된 바와 같이, presbyteros라는 단어는 감독 혹은 목사와 동의어였다. 칼빈은 사실상 신약에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을 위한 본문의 증거는 다음 구절이다. -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딤후 5 : 17)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말씀의 명백한 의미는,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게 다스리지만,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동의회에서 목사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치리를 시행하고 도덕을 바로잡는 감독자로 행동하게 될 잘 훈련되고 열성적인 사람들을 선출했다.<sup>119)</sup>

다스리는 직책을 맡은 장로는 부지런하고 경건하며, 근엄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sup>120)</sup>

마지막으로 집사직이다.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구제사업을 관리하며 직접 빈민들을 돌보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사도들의 교회에는 이런

117) Ibid., 4. 3. 8.

118) Ibid., 4. 11. 1.

119) 티모디 조지, 「개혁자들의 신학」 이은선, 피영민 역 (요단출판사, 1994), p. 283.

120)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성광문화사, 1993, p. 216.

종류의 집사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칼빈은 사도시대 교회의 집사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제네바 교회에는 집사에 두 종류가 있었는데, 구제품을 분배하는 집사와 병자를 돌보는 집사였다. 성경에서 집사는 구제물자를 분배하며, 빈민을 돌보고 빈민 구제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교회가 위임한 사람들이었다. 누가는 사도행전 6 : 3에서 집사의 기원과 임명과 직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121)

---

121) Ibid.

## 제 VI 장 결 론

역사와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교회의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교회 구조의 새로운 변혁과 함께 자유로운 결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이 20세기에 일어난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회일치를 지향하는 연합운동으로, 교회론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바뀌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들이 교회의 본질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교회의 기능에만 치중하게 되었던 것이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이탈하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현실속에서 성경적인 교회관 정립은 어느 시대보다 시급히 요청되며 또한, 이러한 그릇된 교회관들로 인하여 비교회화 운동으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며, 그 본질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개혁주의의 선구자인 칼빈의 교회론 그 배경과 본질이 무엇인지, 그 속성과 기능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다음으로, 본인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우고 경험한바를 토대로 한국교회에 나름대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교회론에 논하기 전에 교회의 어원적 정의를 내려 보았고, 또한,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론의 형성배경으로 로마카톨릭과 루터의 교회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루터와 칼빈의 교회론의 차이점을 먼저 발견하게 되었다.

둘째, 교회의 본질을 일차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분파운동과 연합운동, 사회화와 세속화 물결속에서 교회아닌 교회로 치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데 성경을 떠난

교회 아닌 단체들이 참으로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중요하게 주장했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칼빈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시적 교회만을 주창하는 현대교회들에 대해서 불가시적인 교회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주고, 신자의 어머니로서 교회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곳이며, 이곳에서 양육을 받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선택받은 자로서의 교회관은 칼빈에 의해 강조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째, 칼빈의 교회의 기능(특징)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집행, 권징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는 말씀선포와 성례를 교회에 부탁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할 때에 교회로서 존재하며 동시에 모든 사이비, 이단종파와도 구분되는 것이다. 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넷째, 교회의 본질보다는 교회의 사명과 기능에만 중점을 두는 에큐메니칼 교회관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여기에서 세상만을 위한 교회는 단지 인간화 운동이며 이러한 교회관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떠나 교회를 사회의 변혁도구로 이용하게 한다는 것과 또한, 교회를 떠나서도 구원이 있다는 인식으로 변환되는 것을, 칼빈의 교회론을 통하여 기능적인 교회론을 비판하였고, 다시금 칼빈의 교회론을 제안하였다. 칼빈의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을 중요시 합니다. 에베소서 4:3에 보면 바울이 교회론을 다루면서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되게 하라하지 않고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지 성도는 주안에서 하나

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분이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W.C.C 계통에서의 약점은 이미 하나되게 하신 교회의 본질론을 무시하고 조직적인, 외형적인, 가시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교회가 다시금 교회를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이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몇 가지를 지적과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칼빈의 교회관을 놓고 크게 문제시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공동체 의식이 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나친 개 교회주의가 그것을 대변합니다. 이러한 개교회주의로 인하여 교회성장과 물량주의가 최고의 목표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론에 대한 인식에도 크게 작용하여서 교회의 본질보다는 기능과 방법에만 치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수주의 입장에 있는 개혁교회가 공동체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연합운동에 있어서 아쉬운 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보수주의 신학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보다는 교회의 본질에 너무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통성과 순수성에 더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선교라든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자유주의에 빼앗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을 떠나서 기능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교회로만 본질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제는 전투적인 교회로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은 단지 Ecumenist 가 아닌 성경적 Ecumenist 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러한 칼빈의 자세와, 일치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상황속에서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성경적 조명을 통한 실마리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참 고 문 헌

### ◆ 외 국 서 적 ◆

-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erdmans, 1982.
-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 Erdrmans, 1983.
- G. S. M. Walker ; *Calvin and Church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4.
- Alan Richardson, E. d.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rian  
Theology*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8
- Brown, Driver and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 번 역 서 적 ◆

- Calvin, 「기독교 강요」 신복윤, 한철하, 이종성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1988.
-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풍만, 1985.
- 밀라드 J. 에릭슨, 「교회론」, 이은수역, 서울:기독교문서 선교회,  
1992.
- J. L. 니이브, 「기독교 교리사」, 이장식 역,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Louis Berkhof, 「기독교 교리사」 신복윤 역. 서울:성광문화사,  
1986.



F, 방 달, 「칼빈의 신학서론」 한국칼빈의 연구원편역.

서울:기독교문화사, 1986.

Niesel, Wihelm,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3.

에릭 G. 제이, 「교회론의 역사」 주재용 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티모티 조지, 「개혁자들의 신학」, 이은선, 피영민 역,  
서울:요단출판사, 1994.

폴 D. L. 아비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이기문 역,  
서울:컨콜디아사, 1987.

#### ◆ 국 내 서 적 ◆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한국문서선교회, 1993.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나용화, 「칼빈의 기독교강요 개설」,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서철원, 「교회론」, 개혁신학 연구원, 강의안, 1988.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성광문화사, 1993.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제 2 권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6.

이종성, 「칼빈-생애와 사상」,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사」, 서울:장로회신학대학, 1984.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4.

하문호, 「기독교 교의신학」 IV, 교회론, 삼영서관, 1980.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8.

◆ 논문 및 정기간행물 ◆

김의환, “개혁주의 교회관”, 「신학정론」, 합동신학교,

통권 11권1호, 1993.

전호진, “현대신학과 선교사상”, 「교회문제연구」, 교회문제연구소,

제1집, 1987.

이근삼, “칼빈의 교회론”, 「교회문제연구」, 교회문제연구소,

제1집, 1987.

장승현,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서 일치와 순결에 관한 연구”,

총신신대원, 석사학위논문, 1993.

노재수, “칼빈신학에 있어서 교회론 연구”, 아세아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